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대변인
권오산
010-4830-0511

2020. 6. 10.

집행위원장 정준현 / 전화 062) 525-5313~4 / 팩스 062) 525-0359 / 7쪽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장관 사과! 조선우드 사업주 구속!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6월 10일(수)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故 김재순 대책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공동 국회 기자회견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

개요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순서 : 사회 : 권오산 대책위 대변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모두 발언 : 강은미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 유족 (고 김재순 부친)
 - 발언 1 : 정준현 대책위 집행위원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 발언 2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설 대책위 상임대표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조선우드 사업주를 구속하라!

21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스물다섯 청년노동자 김재순이 죽었습니다. 그는 지적장애인입니다. 5월 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의 조선우드 공장에서 작업 중 수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온몸이 갈 가리 부서졌습니다. 사업주는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서 하다가 자기과실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 하던 업무인 ‘수지 파쇄기 사전가동 및 점검’ 작업을 홀로 하다 당한 사고입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사망 전날과 전전날 사고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보고 파쇄기 사전가동 및 상부에 올라가 작업한 장면을 네 차례나 확인했습니다.

2. 김재순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서 죽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어야 하나 지적장애인이면서도 고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 제거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수지 파쇄기 투입구에 안전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재 파쇄기 공정도 안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2014년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고 개선조치를 했다는 데도 덮개, 울 등의 설치 부족했고 분진 방지조치 및 청소 미실시로 전도 위험이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3. 김재순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적장애인이지만 실업고에서 중장비 자격증을 땀던 그는 굴착기와 지게차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청년이었습니다. 조선우드는 10인 사업장으로 노동조합도 없는 데, 일 힘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입사 14개월 만에 퇴사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조선우드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산재사망 사고를 겪고도, 사업주는 안전설비와 안전 작업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2020년 김재순을 죽게 한 것입니다.

4.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2014년 안전진단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고 진상규명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번이나 노동자를 죽게 하고 아직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 죽었다”며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5. 대책위는 지역의 동종업체 및 파쇄기 사용업체에 대해 광주노동청, 광주시청, 노동계가 함께 ‘위험성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법적 권한 미비와 불시 안전점검으로 이유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종업체 공동조사의 주목적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불시안전점검이 아니라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진행해도 됩니다. 폐기물업체 인허가권을 가진 시·도지사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동종업체 공동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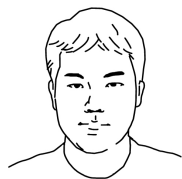
6.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조선우드와 같은 재활용업체수는 전국에 5,972개입니다. 이중 73.3%가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조선우드의 안전보건 상태와 작업환경이 열악하듯, 다른 업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폐기물 재활용 문제는 민간영역의 영세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근본대책을 만들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의 바람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김재순의 죽음은 청년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대물림 가난 등 우리 사회 약자의 문제가 중첩된 비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우선 임기 내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사업장 안전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해 주십시오.

다시는 김재순도,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이천 참사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 6. 10.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엄마가달린다,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민중의 집,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노동조합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광주사무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남대학생행진,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고인 부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
보낸 못한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는 길이 없어
이렇게 편지나마 보냅니다

후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했던 가정의 단
5월 22일 오전 9시 45분,
젊은 청년인 아들 김재준이
두리 화해기에 빨려 들어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해 가둬가 되어 원형을
찾아 냈습니다

재준이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6살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이 산재사망 사고는 광역 광역시
하남산단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장인 조선우드 공장에서
벌어진 산재사고입니다

지역시 2002년도에 산재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지적장애인인 재준이는
두리 화해기에 목숨을 잃었다면 만만하니까?
차라리 못한 아버지인 제가 죽음을
대신했다면 재준이가 이번 사고를 겪지는
않았을까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 위치한
사업장 조선투프는
2014년에도 독재 화해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
다. 당시 안전 진단도 하고 개선 조치도
했습니다

2014년도 사망사고 이후 제대로 개선되고
관리 감독이 됐다면 재수는 꼭지 않았을
까요?

현재 영세사업장이라 관리 감독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이렇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업주에게 들은 많은
사기도 많은 것을 혼자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 진상조사단의
CCTV 작업 영상 확인결과 평순 회오던
노동적인 작업을 하다 난 사고입니다

안전 설비도 갖추지 않고 지적 장애인
인테 홀로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련극도 관구지방
고용노동청도 책임있는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고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해 주십시오

조경하노 부재인 대통령님이 또다 주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 청년의
노동자가 삶을 마감해야 합니까?

조경하노 부재인 대통령님
심신을 다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성조강은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오

입기 안에 산재사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두번 다시는 재능이 처럼, 김홍선 처럼,
구의역 김근 처럼 죽어가는 청년 노동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
주십시오
이천 찬사 처럼 처참하게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일을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입법으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리
가족들이 강제로 원하건

바라노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을
제정 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님 으로서
처선을 다해 주시기 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2020년 6월 10일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못난 아버지 김 모리